

질병보다 위험한 가정 사고

(家庭事故)

== 생후
== 5개월부터
== 는
== 애기는
== 자신의
== 의사에
== 따라
== 움직인다

특히 가을철에는 아이들이 밖에서 놀 기회가 많아지므로 사고위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의 육아개념은 갑작스런 설사나 폐렴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위생관리, 영양섭취에 중점을 두었다.

천연두,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등의 예방접종을 적절 한 시기에 맞춰야 되고, 이유기 어린이의 영양관리에 소홀하면 단백질, 비타민등의 결핍으로 영양실조에 빠지기 쉬워 영양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어린이의 성질에 관심을 두자

그러나 어린이가 생후 5개월이 되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가정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어린이가 먹어서는 안될 약이나 파리약, 쥐약등 극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두고 성인용 약품도 어린이용과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가을철에 사고(事故)가 많다

유아기(幼兒期)의 어린이에 있어 각종 병원균의 감염에 앞서 가정사고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는 어른의 흉내를 내기 좋아하므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약을 먹는일은 삼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른이 없을때 어른을 흉내내어 약을

먹게되면 극약이 아니더라도 복용량 관계로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끓는물이나 불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상처부위가 크던지, 작던지 와셀린이나 붕산연고를 바른후 깨끗한 가제로 혈청하게 덮어준다.

옥도정기나 소독약을 바르면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주의해야 한다. 농촌에서 미처 연고를 비치해 둔것이 없을때는 참기름, 들기름등의 식물성기름을 상처부위에 발라도 좋고 물한컵에 소다를 한스푼가량 넣어 잘 섞은후 소독가제를 적셔 상처위에 덮고 증조수를 부어주는것도 효과적이다.

한창 기어다니는 어린이는 손에 닿는 동전, 단추, 핀등을 입으로 가져간다. 아기들이 삼킨 물건은 대부분 변속에 섞여나오게 되나 바늘, 핀등은 생명에 위협을 줄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치료는 의사에게

아기가 구토를 하거나 복통을 일으키면 일단 의심을 갖고 즉시 가까운 병원에 가야한다. 단추나 과일씨등을 삼켰을때 빵종류를 먹여 이물이 밀려내려갈수 있게 하고 2~3일간 대변은 살펴보아 배설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이런 물건들을 삼켰을 경우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아 심한 기침을 하거나 질식상태에 있으면 아기를 거꾸로 쳐들고 잔등을 세게두드려 삼킨것을 토해내게 한다. 그래도 삼킨 물건이 안나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넘어져서 다치거나 칼에 베었을때는 우선 비누로 깨끗이 씻고 옥도정기나 머큐롬을 바른다. 물에 젖은 피부에 옥도정기를 바르거나 옥도정기 머큐롬을 바른후 그위에 붕대를 감으면 아기의 약한 피부를 상하기 쉬우므로 금해야한다.

평소 어린이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때는 병원에 가기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을 익혀두고 가정상비약을 마련해두면 좋다. 어린이들의 사고는 우선 부모가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에게 해로운 약품이나 칼, 핀등은 어린이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계단이나 높은곳에서 떨어지거나 전열기구에 다치지 않도록 항상 세심한주의를 기울여야 어린이의 생명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가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